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자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미리 알아서 배려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 온 유교 문화권의 한국사회는 더욱더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데, 이처럼 부모에게 보은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르심에 즉시 응하고,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사회는 중시해 왔다(김경동, 1964; 최재석, 1982). 유사한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아동은 성인의 특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로 보고(김효창, 손영미와 박정열, 2002), 때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를 바람직한 아이로 보면서 아이에게 좋은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 2002).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바람직한 아동을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아동양육을 통해 일찍부터 아동의 성인화를 강조하고 있다(정태연 등, 2002).

이처럼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과 함께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적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일뿐 아니라 내면적 갈등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도외시한 강박적 배려심이다. 강박적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이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들이 실제 내면적

으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Jurkovic, 1997). 그러나 일찍이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Boszomenyi-Nagy와 Spark(1973)의 용어를 빌리자면,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 -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 - 혹은 부모화(parentification) - 부모화된 자녀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왜곡된 상태 - 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일시적 차원을 넘어 동일체(oneness)적 관계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최상진, 김혜숙과 유승엽, 1994) 측은지정을 주로 한 감정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유승엽과 장민호, 1998),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와 자식은 특히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부정적인 작용으로 실제 자식의 부모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화 경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모화된 자녀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결혼갈등 및 이혼과 같은 가족의 생태학적 변인과 부모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부모화(Parentification)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화는 어린 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전이를 일컫는다. 이러한 부모화는 어린 시절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성인이 자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Boszomenyi-Nagy & Spark, 1973). 또한, 부모화는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에 부모화가 생길 수 있다(Jurkovic, Jesse, & Goglia, 1991).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픈 부모를 돌보면서 부모화가 발달하기도 하는데, 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용하기도 한다(Bowlby, 1980).

일반적으로 부모화는 도구적 부모 역할과 정서적 부모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Jurkovic, 1997). 도구적 부모역할은 설거지, 청소 세탁, 심부름, 아픈 부모 및 동생 돌보기, 요리하기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부모역할은 가족 구성원의 기분을 맞춰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이처럼 부모화된 자녀는 도구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의 역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Jurkovic, Thirkeild와 Morrel (2001)은 부모화를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로 구분했는데, 파괴적인 부모화는 보살핌이 상호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여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유능하게 보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 매우 적응적이므로 그런 행동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Minuchin, 1974). 예를 들면, 부모화된 자녀들을 가족의 영웅(family hero)으로 개념화한 연구에서(Robbinson & Rhoden, 1998), 이들은 가정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가족의 핵심 인물 역할을 했다. 또한, 책임지는 아이들(responsible children; Black, 1982), 짐을 떠맡은 아이들(burdened children; Byng-Hall, 2002), 일중독 아이들(workoholic children; Robbinson, 2000), 그리고 쫓기는 아이들(Hurried children; Elkind, 1981)이라는 이름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화된 자녀는 경쟁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과도하게 기능하는 아이들(overly functioning children)”에 관한 연구(Chase, 1999)와 함께 부모화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만큼이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응적으로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이 실제 안고 있는 내면적 위험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들과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지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는 있지 못한다(Bowlby, 1973).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은 확실히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에 몰두할 때,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Chase, 1997).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그리고 정신적 분열(Splitting)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뿐만 아니라, 부모화된 자녀들은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고(Byng-Hall, 2002),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불공평함을 호소하며(Jurkovic et al., 2001), 초기 애착 및 경계선 혼란(Chase, 1999)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Cole & Woolger, 1989),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부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이며(Campbell, Adams & Dobson, 1984;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낮은 수준의 대학생할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해야 함으로써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et al., 1991).

#### 자아분화와 삼각화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는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의 구분 정도를 그리고 대인 관계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구분 정도를 일컫는다(김혜숙, 2002). 모자공생관계는 어머니와 자식 간 지나치게 강한 애착 때문에 서로 구분 없이 동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Bowen(1978)은 이러한 관계를 “미분화된 자아 융합체(undifferentiated ego mass)”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삼각화는 개념적으로 가족 내 두 구성원 간의 불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한 명의 가족원을 개입시켜 세 사람 간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적으로는 삼각화에 두 부모와 자식이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개입과 침투를 수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분화되지 않은 가족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투사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owen, 1978). 이러한 가족 구조에서 자녀는 한쪽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된’ 상태에 있으므로, 부모의 불안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불안을 떠안는 것은 실상 부모의 불안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Bowen(1976)은 삼각관계를 최소의 안정적 관계체계라고 언급하면서 삼각관계의 적응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기능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삼각관계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Minuchin, 1974).

일반적으로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Black, 1979; Copans, 1989),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족 내 영웅, 능력가 혹은 희생양이 발생한다. 몇몇 구조적 입장의 가족체계이론가(Boszormenyi-Nagy & Spark, 1973; Minuchin, 1974)들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간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부 간의 갈등과 위기가 자식에게 전이되는 경우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상황에 따라 약자는 자녀와 연합을 하여 강자에 맞서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는 약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권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어머니는 자식을 삼각관계로 끌어들여 아버지의 권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결탁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동시에 특정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

삼각구조 안에 개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가족구성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덜 변화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모의 긴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자 부적절한 시도를 하는 자녀가 삼각관계에 개입되기 쉽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 자녀나 부모 간의 불안한 관계를 참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로 삼각관계에 일찍부터 개입하게 되는데(Minuchin, 1974), 가족 역동은 이러한 자녀에게 집안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부여하고 일찍부터 성인의 역할을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삼각관계에 개입한 자녀는 애착대상인 부모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모 간의 역동에 개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여 애착대상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갖는다(Chase, 1999). 심지어 부모 중 취약한 한 쪽은 배우자와 같은 수준의 친밀성을 자녀에게 기대하여, 삼각화에 개입한 자녀는 부모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Jacobvitz & Sroufe, 1987).

### 가족갈등 및 스트레스

가족체계모형(Turnbull, Summers & Brontherson, 1984), 생태학적 모형(Bronfenbrenner, 1979), 그리고 교류모형(Sameroff & Chandler, 1975)은 모두 ‘가족원 한 명이 장애자이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가족원 모두가 장애나 질병에 대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존재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갈등 및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기존 연구들은 가족갈등 및 스트레스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ath & Gumley, 1987; Jurkovic et al., 2001; Lamorey, 1999). 예를 들면, 부모화를 일반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로 구분하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 간 부모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더 부정적으로 부모화되는 경향이 있었다(Jurkovic et al., 2001).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알콜 중독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의 특정 자녀가 부모로서 혹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떠맡게 됨으로서 세대 간 경계선이 왜곡되었다(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way, 1992).

가족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부모-자녀 간 역할이나 형제자매 간의 역할이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재정립된다. 이러한 위기에 적응하는 동안 형제자매들은 어쩌면 가족 위기 조절기술을 배우고, 가족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역동이 특정 자녀에게 성인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극단적인 무력감, 과도한 충성심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rber & Jenne, 1963; Gath, 1973).

### 본 연구

앞서 개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관련 변인으로 효, 자아 관련 측면, 삼각화, 소외감 등과 관련해서 부모화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예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그들의 효(혹은 부모에 대한 충성심)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화, 자아분화 및 삼각화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모화가 높은 아이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낮고, 삼각화 정도는 높을 것이다. 셋째,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소외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삶의 질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반 가족과 이혼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가족의 자녀들 간에는 부모화 및 그것과 관련된 변인들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조사하여 알아보았다. 발달 과업의 측면에서 아동기는 부모에 의한 보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며 청소년기는 자율 및 독립성의 증가로 자아 중심적이 되며 부모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다(송명자, 1998)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준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어 자녀와 부모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반면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 및 타인과의 친밀성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인데다가(Erikson, 1968)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이 증가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주된 행동양식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쉽다. 자녀의 부모화된 행동은 확장된 인간관계에서도 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관계로 나타나기 쉬운데 대학생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행동양식을 쉽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한국의 아동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방법 및 절차

### 참가자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70명(남: 97명, 여: 173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0.74였다. 참가자 중 가족원 중 한 명이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가 11명(4.2%), 부모가 갈등이나 융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49명(18.6%), 부모의 별거 및 이혼의 경우가 17명(6.4%), 그리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가 5명(1.9%)이었다. 본 연구에 대한 참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 측정도구

부모화는 Sessions와 Jurkovic(1986)의 부모화 성인용 척도(PQ-A Parentified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며 예로 응답한 문항의 수가 부모화 정도를 나타낸다.

부모에 대한 효(혹은 충성심)를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로 측정하였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효를 각 30문항으로 Likert형 5점 척도 상에서 측정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도구적(기능적으로 가족원의 일을 돕는 것), 표현적(정서적으로 부모 및 가족원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 불공평성(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은 정도) 차원이 있다.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척도의 하위척도 중 정신내적 분화 척도와 대인관계적 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삼각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척도의 하위

척도인 삼각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식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Hoffman이 제작하고 정은희(1992)가 번안하여 이준엽(1994)이 표준화한 심리적 독립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능적 독립(13문항), 정서적 독립(17문항), 갈등적 독립(25문항), 태도적 독립(14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독립 정도는 높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점수를 역산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심리적 독립을 지칭하였다.

Maddi, Kobasa와 Hoover(1979)의 소외감 검사를 이명신(1998)이 예비조사를 통해 60문항 중 30문항을 선정한 'Qlife 소외감 검사: 혼합적 수준의 주관적 삶의 질: 소외감'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소외감을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확실히 그렇다(10)로 표시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극단적 모험성, 의욕상실, 무력감, 허무주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

자료 수집은 심리학 관련 3개의 과목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각 수업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총 325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83부가 회수

되었다.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270부의 질문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결 과

본 절에서는 우선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측면으로 효, 자아분화, 삼각화, 심리적 독립 및 소외감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부모화 및 그와 관련된 변인에서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대학생들의 부모화와 효를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의 부모화 점수는 총 42점 만점에 평균 21.81점( $SD = 5.03$ )이었다. 또한, 5점 척도로 측정된 현재의 효 점수는 전체 평균이 2.39( $SD = .45$ )였으며, 도구적, 표현적, 불공평 등 하위요인들의 점수는 각각 2.30( $SD = .61$ ), 2.62( $SD = .59$ ), 2.26( $SD = .58$ )이었다. 과거의 효 점수는 전체 평균이 2.52( $SD = .40$ )였으며, 하위요인의 점수는 도구적 차원에서 2.42( $SD = .56$ ), 표현적 차원에서 2.88( $SD = .48$ ) 그리고 불공평 차원에서 2.28( $SD = .62$ )이었다. 전체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효 점수가 과거의 효 점수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1, 269)} = 10.01,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현재에 부모 및 가족

표 1. 부모화와 효의 상관관계

변인	효(과거)				효(현재)			
	도구적	표현적	불공평	전체	도구적	표현적	불공평	전체
부모화	.49***	.63***	.46***	.70***	.45***	.42***	.44***	.61***

N = 270. \*\*\*  $p < .001$ .

일에 더 많이 개입함을 의미한다.

부모화와 과거 및 현재의 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의 효와 현재의 효는 전체적으로  $.77(p < .001)$ 의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도구적 차원에서  $.74(p < .001)$ , 표현적 차원에서  $.54(p < .001)$ , 불공평 차원에서  $.86(p < .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효가 시간에 따라 상당히 일관적으로 유지됨을 지적해 준다. 부모화와 효의 관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화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효와 매우 높은 정적 상관( $r = .70$ )이 있었으며, 현재의 효와도 상당한 크기의 정적 상관( $r = .61$ )이 있었다. 또한, 효의 각 하위요인별로 볼 때, 부모화는 도구적, 표현적 및 불공평 등 효의 하위 요인들과 서로 유사한 크기의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크기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효보다는 과거의 효에서 더 큰 경향이 있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효의 점수도 높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과거에 본 연구 참여자들이 어렸을 때의 효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의 부모화, 자아분화 및 삼각화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의 정신분화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상에서  $3.06(SD = .56)$ 이었으며 대인분화의 평균은

$3.26(SD = .52)$ 이었다. 삼각화 점수도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2.39(SD = .68)$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의 자아분화 정도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약간 높은 점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화, 자아분화의 세 하위요인인 정신분화, 대인분화, 그리고 삼각화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화는 삼각화와 어느 정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r = .32$ ), 부모화가 높을수록 삼각화도 높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모화는 정신분화 및 대인분화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각화도 정신분화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 $r = -.28$ )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대인분화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나 삼각화가 높다고 해서 자아분화가 반드시 낮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그리하여 이들의 상호 가족관계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독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은 5점 척도 상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11(SD = .39)$ 이었다. 그 하위요인별로는 갈등차원( $M = 3.43; SD = .56$ ), 기능차원( $M = 3.04; SD = .67$ ), 태도차원( $M = 2.97; SD = .57$ ), 그리고 정서 차원( $M = 2.73, SD =$

표 2. 부모화, 자아분화 그리고 삼각화 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모화	자아분화-정신분화	자아분화-대인분화	삼각화
부모화	1.00			
자아분화-정신분화	.06	1.00		
자아분화-대인분화	-.02	.39***	1.00	
삼각화	.32***	-.28***	-.06	1.00

N = 270. \*\*\* $p < .001$ .



표 3. 부모화와 심리적 독립과의 상관관계

변인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전체
부모화	-.00	-.06	-.27***	.04	-.14*

N = 270. \*  $p < .05$  \*\*\*  $p < .001$ .

.66) 순서로 독립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화의 심리적 독립과의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화는 심리적 독립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14$ ).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때, 부모화는 갈등적 차원의 독립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27$ )이 있었을 뿐, 나머지 요인과는 실질적으로 무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모화가 심리적 독립과 크게 관련성이 없고, 부분적으로는 갈등적 독립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화 정도가 높은 자녀일수록 그들의 소외감이 더 높은지 알아보았다.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대학생의 소외감 점수는 평균 2.62( $SD = 1.28$ )로 비교적 낮았다. 하위요인별로 볼 때, 극단적 모험성에서 소외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 $M = 3.00, SD = 1.43$ ). 그 다음에는 무력감( $M = 2.95, SD = 1.45$ ), 허무주의( $M = 2.71, SD = 1.47$ ), 의욕상실( $M = 2.07, SD = 1.46$ )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화와 소외감의 상관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화는 전반적으로 소외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부모화가 높다고 해서 삶의 질이 반

드시 낮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소외감의 하위 요인별로 부모화와 상관을 살펴 볼 때, 극단적 모험성 및 의욕상실이 부모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지만, 그 크기는 매우 작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와 소외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는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모화와 관련된 가족 체계적 변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화가 가족 및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족 내 갈등과 문제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내 갈등이 부모화 및 그와 관련된 변인들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족을 일반 가족과 특수 가족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원 중 한 명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가족의 학생 11명(4.2%), 부모의 갈등이나 융합 관계를 보고한 49명의 학생(18.6%), 부모가 별거나 이혼한 가정의 자녀 17명(6.3%),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혼가정의 자녀 5명(1.8%)이 속한 가족을 특수 가족으로 구분한 반면, 이상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을 일반가족으로 구분하였다. 그

표 4. 부모화와 소외감과의 상관관계

변인	극단적 모험성	의욕상실	무력감	허무주의	전체
부모화	.13*	.13*	.10	.08	.12*

N = 270. \*  $p < .05$ .

리하여 특수가족에는 82명의 학생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31.1%에 해당된다.

일반가족과 특수가족에 따라 부모화 및 그와 관련된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 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화와 효 및 책임감, 정신분화, 삼각화 그리고 소외감의 경우, 특수가족의 자녀들이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즉, 특수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더 주는 입장에만 처하게 된다. 심리적 독립의 경우, 기능과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더 많이 독립되어 있으나 갈등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며, 분화 차원에서도 덜 분화되었다. 또한 특수가족은 더 많은 삼각화 경향성을 보였으며, 더 많은 소외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모화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집단을 상대로 성차를 살펴보았을 때,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파괴적 도구화를 Jurkovic 등(2001)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과거와 현재 각각 도구차원과 표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도구차원의 파괴적 부모화는 효척도에서 도구차원과 불공평적 차원에서 모두 중앙값(Median)보다 높은 경우이며, 표현차원의 파괴적 부모화는 표현차원과 불공평적 차원에서 모두 중앙값(Median)보다 높은 경우로 범주화했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차원 중 두 가지 이상에서 파괴적 부모화를 기록한 피험자를 병리적으로 위험한 부모화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분된 파괴적 부모화 집단은 모두 105(39%) 가족이었다. 파괴적 부모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표, 6), 현재의 도구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부모화 및 효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족 및 부모에 도

표 5. 가족 갈등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

변인	일반 가족(N = 182)	특수 가족(N = 82)	F(1, 268)
부모화	21.12(4.84)	23.24(5.19)	10.38**
효(과거)	2.33(.40)	2.51(.51)	9.91**
효(현재)	2.47(.35)	2.64(.47)	11.09*
심리적독립(기능)	2.96(.67)	3.22(.58)	9.35**
심리적독립(정서)	2.66(.65)	2.87(.60)	6.08*
심리적독립(갈등)	3.49(.56)	3.30(.56)	6.38*
심리적독립(태도)	2.94(.55)	3.07(.55)	3.42
정신분화	3.13(.55)	2.93(.53)	7.52**
대인분화	3.27(.53)	3.23(.50)	.42
삼각화	2.24(.58)	2.71(.77)	30.23***
소외감	2.52(1.20)	2.91(1.45)	5.30*

\*  $p < .05$  \*\*  $p < .01$  \*\*\*  $p < .001$ .

표 6. 성별에 따른 부모화 경향성의 차이

성별	효(과거)					효(현재)				
	부모화	도구	표현	불공평	전체	도구	표현	불공평	전체	
남성	23.47 (3.70)	2.43 (.50)	2.85 (.43)	2.55 (.34)	2.61 (.28)	2.72 (.41)	3.01 (.30)	2.59 (.42)	2.77 (.27)	
여성	25.35 (5.12)	2.73 (.60)	3.09 (.60)	2.76 (.52)	2.85 (.42)	2.82 (.49)	3.17 (.46)	2.76 (.56)	2.92 (.35)	
F(1, 105)	4.30*	7.33**	4.97*	5.48*	10.63**	1.24	4.33*	3.06+	5.39**	

구적으로 혹은 표현적으로 보살핌과 지지를 주는 입장에 더 잘 처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모화가 효, 자아분화, 삼각화, 심리적 독립, 소외감 등과 같은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화 및 관련 변인들이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효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는 삼각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화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아가 덜 분화되지는 않았으며, 심리적 독립 중 갈등적인 차원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나머지 차원의 심리적 독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가 높은 자녀가 가정에서 소외감을 더 느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가정에 여러 유형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부모화와 삼각화 점수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파괴적 부모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 부모화, 효 그리고 삼각화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과거 및 현재의 효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으며 효의 각 하위차원들 과도 서로 유사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도구적으로 부모를 더 많이 돕고 정서적으로 부모를 더 많이 보살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불공평적 부모화 경향성도 동시에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화된 자녀들의 이러한 도구적, 표현적 배려 행동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부모화된 자녀들이 주로 주는 입장에만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부모화된 자녀들이 느끼는 불공평성과 억압된 사랑욕구로 인해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Jurkovic 등(2001)은 도구적 부모화와 불공평적 부모화가 높은 경우를 파괴적인 도구적 부모화로 그리고 표현적 부모화와 불공평적 부모화가

높은 경우를 파괴적인 표현적 부모화로 칭하면서 이러한 파괴적 부모화의 위험성을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즉, 가족을 적당하게 배려하고, 부모를 보살피려는 과도하지 않은 마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 중의 하나이며, 충분히 적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화된 자녀들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지나친 효 및 책임감에 집착하여 자신의 배려 받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배려심 혹은 책임감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ullinwider-Bush와 Jacobvitz(1993)에 의하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여성의 경우 정체감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연애 및 직업 선택 시 부모의 가치와 기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자녀는 사랑을 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자기애적 성격을 발달시키기 쉽다(Jones & Wells, 1996). 자기애적 성격을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은 주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온 자녀들로서, 자신의 재능 및 중요성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나 진정한 감정이 입이 어려워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인다. 그 밖에도 부모화된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대학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 Chase, Deming & Wells, 1998; Held & Bellows, 1983), 대인관계의 어려움(Betchen, 1996; Olson & Gariti, 1993; West & Keller, 1991)을 비롯하여 수치심, 피학적 성격, 그리고 분리형 성격(Splitting) 경향을 보인다(Wells & Jones, 1999). 이와 같이 부

모화된 자녀들의 일방적 배려심은 여러 가지 내면적 위험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Bowen, 1974)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화된 자녀들은 삼각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 부모 및 가족 일에 더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접근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역동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통한 접근방법이다(Minuchin, 1974). Minuchin에 의하면, 명백한 세대간 경계선이 없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정서를 계속해서 침범함으로써 정서적 융합 상태에 이른다.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삼각화 경향성이 높다는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선이 없이 부부관계의 중재자 및 위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은 일시적으로는 안정적 가족체계를 이루는 데 공헌할 수 있지만, 부모화된 아이들이 부모의 정서에 융합되어 부모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의미한다.

게다가 가족갈등과 부모화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 기존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Cummings & Davies, 2002; Davies & Cummings, 1994; Davis, Hops, Alpert & Sheeber, 1998; Lamorey, 1999), 가족원의 질병이나 사망, 부모의 갈등 및 융합, 별거 및 이혼, 재혼과 같은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자녀들보다 부모화, 효, 그리고 삼각화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효 및 충성심, 그리고 삼각화가 안정된 가족체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갈등적 가족체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에 만성 질환자가 있거나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이혼을 하여 부모가 불안 및 우울을 나타낼 경우 가족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보통가족보다 클 것이며 부담 및 불안감을 견디기 어렵거나 공감수준이 더 높은 자녀는 가

족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족 일을 담당하거나 가족원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쉽다. 부모화된 자녀들의 이러한 행동은 가족원의 긴장을 줄여주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의 행동은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화된 자녀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의 안전대상이 불안했을 때 자동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애착 체계의 결과라고 보기도 하는데 (Byng-Hall, 2002; Crittenden, 1999; Kozłowska, 2002), 안전대상인 부모가 불안할 때 자녀들은 자신의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고 부모를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들은 항상 가족의 특히 부모의 안정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또한, 이혼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자녀들은 더욱더 한부모와 동맹관계를 맺기 쉽다. 이 경우 자식은 부모의 지지자로서,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혼자가 된 부모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힘이 되어준다. 자녀는 혼자가 된 부모에게 있어 부담이자 삶의 이유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동맹 관계가 한부모 가족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옥선화, 성미애, 이재림과 이경희, 2002), 너무 어린 나이에 아동기를 상실해버린 자녀의 정신적인 건강을 생각해볼 때, 이혼과 함께 자식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 부모화된 자녀의 자아분화, 심리적 독립 및 소외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화는 삼각화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신분화 및 대인분화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부모화 경향성이 높은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가 부

모와 덜 분화되었다는 기존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예로, Chase, 1999; Jacobvitz & Sroufe, 1987; Minuchin, 1974).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화가 자아분화와 부적인 상관이 없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대학생 자녀들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심리적 특성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고, 대신에 가족 내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나 갈등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부모화의 특성을 강하게 갖게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화와 삼각화의 높은 정적 상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부모화와 자아분화와의 관계성을 다룰 필요가 있고, 좀 더 이상적으로는 여러 수준의 연령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서 및 태도의 독립은 부모화와 상관이 없었으나, 갈등차원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화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화와 자아분화의 무관함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학생은 자아분화가 되어 있고, 정서 및 태도도 부모로부터 독립적인데, 단지 부모화된 자녀들은 갈등 차원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수준이 높아 가족 갈등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갈등이 존재하는 가족 체계가 자녀의 부모화 및 개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은 가족에 불안을 야기 시키며 부부 중 약한 한

사람이 자식 중 한명을 부부관계에 개입시켜 삼각관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삼각관계에 개입되는 자녀는 약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부모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떠맡게 되어 부모화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부모화 경향성이 가족의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갈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화와 자아분화와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문화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문화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왔다. 한국의 상호의존적 관계 문화에서 부모를 배려하고 가족 일에 책임을 지며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부모가 신뢰하는 동료이자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쉽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과업으로 받아들여 충동적이지 않고, 의젓하며, 책임감을 다하는 정신적으로 분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화된 자녀는 비록 부모의 기대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대되어지는 모습이 정신적으로 분화된 모습이므로 본 연구에서 정신분화와의 상관성이 없었을 것이다.

대인관계 차원에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또한 한국의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양의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모에게 수용 받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한국에서의 부모화된 자녀는 오히려 부모가 의지할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듯 하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부모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독립 및 분화와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한국

의 부모화는 오히려 자아분화와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모화의 이중적인 특성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의 안위를 살피고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쓴다. 부모의 기대가 의젓한 모습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의젓하고, 독립적이며,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지만, 실상 이러한 행동 자체가 부모의 기분에 민감한 반응의 결과로 본다면 부모화된 자녀의 책임감 있고 의젓하고 어른다운 행동은 결국 부모의 정서에 매우 의존적이며 덜 분화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부모화가 아무런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모화의 이중적인 정신 역동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층 면접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화와 소외감과의 관계성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화와 극단모험 및 의욕상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화된 자녀의 배려 받고, 보호받는 경험의 부족이 그들을 의욕상실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크기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허무주의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들의 배려적 특성이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의 관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화된 자녀의 타인 배려, 자기희생, 보살피는 특성은 좋은 성격이라는 피드백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행동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의 소외감 혹은 삶의 질이 부모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삶을 위한 삶이 지속적인

때에도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자아분화 및 심리적 독립과 마찬가지로, 소외감도 부모화와 관련된 가족의 역동적 측면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학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성별에 따른 부모화 경향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성차는 나타나지 않아 일부 기존 연구결과(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 Sessions & Jurkovic, 1986)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역할에 대한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한국 가족 구조에서 아들은 궁극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에 대한 책임감 및 부모화를 촉진시켜 남자들의 부모화 경향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화는 부모를 도와주거나, 가족 일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Jurkovic, 1997). 한국의 부모는 아마도 아들에게 가족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자녀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정도의 부모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화와 효 및 충성심 척도를 근거로 하여 구분한 파괴적 부모화 집단에서는 남녀별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가족 및 부모에 대한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험을 자주 보고한 자녀들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부모를 위한 마음이 다만 주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및 심지어 형제자매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도 하는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다시 말해, 여성이 보다 더 감정 이입적이며 배려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기질적 입장과 함께, 한국 문화에서 딸의 배려를 아들의 배려 행동보다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와 가족에 대해 더 많은 효 및 충성심을 가지며, 삼각관계에 개입되기 쉽고 가족 갈등이 있을 때 쉽게 개입하여 가족의 갈등을 내면화하기 쉽다.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Boszormenyi-Nagy & Spark, 1973)에도 불구하고 부모화된 자녀들은 가족원으로부터 사랑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심리적 위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려서 받지 못한 사랑은 성장하여 다음 세대, 즉 자녀로부터 다시 받아 내려는 속성이 있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부모화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화는 세대간 전이되기 쉽다(Byng-Hall, 2002).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게다가 대학생의 부모화 및 삼각화가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조의 역동성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치료는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고려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된 자녀들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매우 배려가 많고, 부모를 돌보는 착한 자녀들의 내면적 위협성을 보고하고 이들을 위한 치

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부모화와 가족 갈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치료에서 가족 역동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분리가 덜 된 상태이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문지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부모화된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중 하나인 유아화(infantalization: Jurkovic, 1997) 및 Winnicott의 거짓자기(Greenberg & Mitchell, 1999/1993)를 가려내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경동 (1964).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 1, 3-24.
- 김혜숙 (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송명자 (1998). 발달 심리학, 학지사.
- 옥선화, 성미애, 이재립, 이경희(2002). 빈곤여성 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족관계 학회지*, 7(3), 55-78.
- 유승엽, 장민호 (199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준엽 (1994). 심리적 독립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65-82.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etchen, S. J. (1996). Parentified pursuers and childlike distancers in marital therap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4(2), 100-108.
- Black, C. (1979).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4(1), 23-27.
- Black, C. (1982). *It will never happen to me*. Denver: M. A. C. Publications.
- Boszo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4). Alcoholism as viewed through



- family systems theory and psycho therap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233, 115-118.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ew Yor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9).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509-525.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Sage.
- Chase, N. D., Deming, M. P., &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 Cole, P., & Woolger, C. (1989). Incest survivors: The rela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nd their own parenting attitudes. *Child Abuse and Neglect*, 13, 409-416.
- Copans, S. (1989). The invisible family member: Children in families with alcohol abuse. In L. Combrinck-Graham(Ed.), *Children in family contexts: Perspectives on treatment*, 277-298.
- Crittenden, P. M. (1999). Danger and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self-protective strategies. In J. Vondra & D. Barnett (Eds.), *Monographs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64(258), 145-171.
- Cummings, E. M.,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31-63.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Hops, H., Alpert, A., & Sheeber, L. (1998). Child responses to parental conflict and their effect on adjustment: A study of triadic rel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163-177.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arber, B., & Jenne, W. C. (1963). Family organization

-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7).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ath, A. (1973). The school-age siblings of mong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3, 161-167.
- Gath, A., & Gumley, D. (1987). Retarded children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5), 715-730.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91-299.
- Greenberg, J. R. & Mitchell, S. R. (1999).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93년에 출판). 302-368.
- Held, B., & Bellows, D. (1983). A family systems approach to crisis reactio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363-373.
- Jacobvitz, D.,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t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 1496-1504.
- Jones, R., & Wells, M. C.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 Mazel.
- Jurkovic, G. J., Jesse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02-314.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ozłowska, K., & Hanney, L. (2002). The network perspective: An integration of attachment and family systems theories. *Family Process*, 41(3), 285-312.
- Lamorey, S. (1999). Parentification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 In Chase, N. D.(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75-91. Sage.
- Maddi, S. R., Kobasa, S., C., & Hoover, M. (1979). An alienation tes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 73-7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M., & Gariti, P. (1993). Symbolic loss in horizontal relating: Defining the role of parentification in addictive/destructive relationship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5(3), 197-208.
- Reeves, P. M. (1999). The archetype of the parentified child: A psychosomatic presence. In

-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171-184. Sage.
- Robinson, B. E. (1998a). *Chained to the desk A guidebook for workaholics, their partners and children, and the clinicians who treat the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Robinson, B. E. (2000). Workaholism and family functioning: A psychological profile of family members. In Robinson, B. E. & Chase, N. D. (2000). *High-performing families: Causes, consequences, and clinical solution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Robinson B. E., & Rhoden, L. (1998). *Working with children of alcoholics: The practitioner's handbook (2nd ed.)*. Thousand oak, CA: Sage.
- Sameroff, A., & Chadler, M. (1975). Reproductive risk and the continuum of caretaking causality. In F.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187-2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ssions, M., & Jurkovic, G. J. (1986).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In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Philadelphia: Brunner/Mazel.
- Turnbull, A. P., Summers, J. A., & Brotherson, M. J.(1984). *Working with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A family systems approach*.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Kansas University Affiliated Facility.
- Wells, M. & Jones, R(1999). Object relations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narcissistic and masochistic parentification styles. In Chase, N. D.(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117-131. Sage.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West, M. L., & Keller, A. E. R.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3), 425-431.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Parentification of Children

**Eunyoung Cho**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of the parentified child. A total of two hundreds seventy (N = 270)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ents completed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Adult, Filial Royalty Scoring-Adult, Self-differentiation, Triangulation,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bove of all scores from the students whose parents either have serious disease, died, discord, separated, and divorced (general family, N = 182) or never (special family, N = 82)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filial & royalty, triangulation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in the dimension of conflict. Second, children from special family were inclined to be more parentified than the children from general family. Finally, parentified child was inclined to report lower level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an non-parentified child. This research suggest that although parentified children look like adoptive and considerate, they are likely to have psychological risk.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therapy can be helpful to the parentified child's mental health.

*Keywords : Parentification, Filial royalty, Triangulati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lienation, Family Characteristics*